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05. 18권 2호 pp.113~125

〈해설〉

한·중·일 학교 환경교육의 전개와 특색

스와 테츠오(諏訪 哲郎)

학습원대학(學習院大學, 일본), 한·중·일환경교육협력회 대표

Spreading Processes and Features of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etsuo Suwa

(*Gakushuin Univ., Japan*)

Abstract

Korea, China and Japan show distinct features in their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are derived from their own spreading processes.

Japanes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has developed as a result of assimilating of anti-pollution education and nature education, and has a feature that makes much of nature experiences. The introduction of 'Period for Integrated Study' in 2002 seems to begin activating Japanes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Chines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start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ound the middle of 1970's, and has a feature that makes a point of scientific approach, even in primary education schools. The two government ordinances, 'National Ac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General Knowledge (1996~2010)' and 'Educational Scheme of Environmental Theme Stud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ssued in 2003, gradually promote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in China. It is remarkabl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for Youth and also increasing environmental NPOs often support environmental activitie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The most notable feature of Korean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is that 'Environment'

* 본 원고는 스와 교수에 의해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동경농공대학 대학원 환경교육학연구실에 재학 중인 원종빈씨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본을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음을 밝힙니다.

* 2005. 7. 3 접수, 7. 19 심사완료, 7. 22 게재확정

has already offered as a regular elective subject in junior high school, and official 'Environment' textbook has published since early 1990's. Though, the adoption rate of 'Environment' is not yet so high. Each country's peculiar issues are as follows.

Japan: ① Students often lack basic knowledge about environmental important problems.
 ② "Period for Integrated Study" is now threatened with cutting hours by the idea of increasing periods for basic subjects to keep high achievement.

China: ① There are large regional differences and school distinctions in ope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② Adult environmental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because the most part of Chinese have no experience of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Korea: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hich plans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eachers group is not quite well. ② The adoption rate of 'Environment' in junior high school needs to be improved.

The training of many teacher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nstructors may be the most important and effective cooperative ac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for that purpose we ought to work on making a better handbook for instructors, at first.

Key words : Japan, China, Korea,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comparative analysis

I. 서 론

일본의 환경교육 NPO 단체인 한·중·일 환경교육협력회는, 1998년부터 중국 각지에서 참가 체험형의 환경 학습을 보급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또, 2001년부터는 환경교육 연수회의 중국측 파트너인 북경의 환경교육

NPO 「綠之行」(자연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는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환생교(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의 모임)의 멤버와 함께 매년,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을 개최해 왔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 워샵의 3국 공동 사업으로서 한·중·일 공동 편찬의 환경교육 교본 작성에 착수하여 2004년 봄에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한·중·일의 3국 언어로 간행하였다(표 1 참조).

〈표 1〉 한·중·일 3국 환경교육 교류의 흐름 개략

1996년 3월	제1회 일중 공동 환경교육 심포지엄(북경) 제2회 97년 12월에 토쿄, 제3회 98년 5월에 북경에서 개최
1998년 8월	「일중 환경교육협력회」 발족, 이후 중국 각지에서 환경교육 연수회를 개최
2001년 7월	제1회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 (일본 아카기), 한국 합류
2002년 1월	「일중 환경교육 협력회」를 「한·중·일 환경교육협력회」로 개칭
2002년 8월	제2회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 (중국 북경)
2004년 1월	제3회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 (한국 경남)
2004년 4월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한·중·일의 3국 언어로 간행
2004년 7월	제4회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일본 키타큐슈)
2005년 8월 (예정)	제5회 동아시아 환경교육 워샵(북경) 및 한·중·일 청소년 환경교육 서머 캠프 (중국 대련)에서 개최 예정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에 있어서의 학교 환경교육의 특색과 차이를 실감해 왔다. 또, 문헌이나 인터넷의 정보를 이용해 3국의 학교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의 위치 설정의 차이도 함께 파악하도록 해 왔다. 또한 일본은 물론, 한국의 학교 20여 개교와 중국에서는 10여 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각국의 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해 왔다.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의 학교 환경교육의 전모를 논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3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전개와 특색을 논하고 그와 동시에 각각의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의 학교 환경교육을 보급·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가 요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논하려고 한다.

II. 본 론

1. 일본의 학교 환경교육: 그 전개와 특징

우선, 일본의 학교 환경교육의 전개와 특색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동향을 소개한 후에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도 다른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같이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와 75년에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 환경교육 워샵이 계기가 되어 환경교육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교육의 장소에서는 환경교육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지만 학교교육의 장소에서는 그 당시 큰 흐름이 되지는 못했다. 환경청의 외곽

관변 단체의 일본 환경협회로부터 1981년에 「환경교육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팜플렛이 간행되었지만 학교 행정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당시 문부성)이 환경교육 추진·조사·연구 협력자회의를 발족시킨 것은 1990년이 되고 나서부터이며 일본의 교육 관계자가 환경교육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도 그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미나마타병이나 이파이이파이병, 요카이치 천식이라고 하는 공해에 대한 학습이 학교 안에서 다루어졌으며 이것을 공해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비 문화의 진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면서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었고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배기ガ스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기업 사이드에는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기업의 존속·발전에 있어 중요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공해 방지 대책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때의 공해 교육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잊어가게 되었다.

한편,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아이들의 주위에는 숲이나 동산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냇물에서 낚시를 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들판에서 나비나 잠자리를 뒤쫓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다.¹⁾ 이렇게 아이들을 둘러싸는 환경의 악화와 아이들의 자연 체험 결여가 진행되는 가운데 풍부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연보호 교육과 아이들이 자연과의 만남이나 자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을 중시하는 자연 체험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특히 후자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참가 체험형의 학습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회 교육의 장소에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자연 체험 교육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1987년에 시작한 「키요사토 환경교육 포럼」이 발전해, 1992년에는 「일본 환경교육 포럼(Japan Environmental Education Forum)」이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공해 교육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1) 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1995) 아이들의 자연 체험 생활 체험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지구 환경 문제를 시야에 넣은 교육을 모색하고 있던 사람들과 자연과의 만남이나 자연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어 「지금부터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기본 틀을 수립·발전시키자」라는 움직임이 80년대부터 서서히 숙성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일본환경교육학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도록 1991년에 문부성이 「환경교육 지도 자료」(중·고등학교용, 초등학교용은 1992년)이라는 책자를 간행하였고 「향후, 이른바 환경교육의 충실을 한층 꾀한다.²⁾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 「환경교육 지도 자료」의 간행과 문부성의 환경교육 강화의 지시가 일본의 학교 현장에 환경교육을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시는 「특별한 교과 등을 마련하는 것은 실시하지 않고, 원칙으로서 각 교과의 도덕 및 특별 활동 속에서 지도를 할 것³⁾이라는 단계에 머무르고 말았다. 예를 들면, 중학교 기술·가정과에서의 조리에 관한 학습으로서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안전성을 분별해 적절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⁴⁾라든지 혹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서 재이용하는 것이나 소비 생활의 재검토를 하고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다.⁵⁾와 같은 기술로서 각 교과 속에서 미흡한 환경과 관계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지시이었다.

그 결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 속에서 활발히 환경에 관한 학습 내용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험을 가까이 둔 중학생에게는 환경 학습에 그다지 시간은 할애할 수 없다」라든지 「자신은 그다지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전문 영역의 이야기에 충실하겠다」 등 이와 같이 환경교육에 소극적인 교원도 많아 실제로는 환경교육이 학교 안

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002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한국의 교육 과정에 상당)의 개정으로 「총합 학습 시간」이 초·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총합 학습 시간은 한국의 제7차 교육 과정의 재량 활동과 비슷하며, 주체적인 활동이나 교과의 횡단적인 학습을 중시한 것이다. 다만, 뒤에서 논하겠지만 한국의 재량 활동과 크게 다른 부분도 있다. 일본의 총합 학습 시간은 학습 지도 요령상의 기재로 불과 600자에 지나지 않는 간단한 것이며 교과서가 없다고 하는 점도 큰 특색이다.

문부과학성은 그 시간의 틀 속에서 환경교육을 하라고는 말하지만 「총합학습시간」의 실천 항목으로서 국제 이해, 정보, 복지·건강 등과 함께 환경에 대한 학습이 예시되고 있다.⁶⁾ 그 결과, 예를 들면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1년차에 지역 사회에 관련된 학습, 2년차에는 환경에 관해서 취급해, 3년차에서는 복지·건강 혹은 국제 이해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총합학습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범위가 확보되어 환경이 다루어지는 비율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총합학습시간」에 진학이나 취직 등의 진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많아 환경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시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3년 7월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보전활동·환경교육추진법)⁷⁾이 성립했지만 이 법률이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미지수이다.

2. 중국의 학교 환경교육(1): 그 전개

중국의 경우도 1972년의 스ток홀름에서의 국제 연합 인간환경회의가 자극이 되어, 그 다음 해의 73년에 제1회의 전국 환경 보호 회의가 열렸다.

2) 문부성(1991). 머릿말

3) 문부성(1992). p. 12.

4) 문부성(1991). p. 55.

5) 문부성(1992). p. 21.

6) 문부성(1999). p. 128.

7) http://www.env.go.jp/policy/suishin_no/보다 검색·열람가능(일본어)

그리고 그 회의로 인해 「환경의 보호·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중시된 것은 대학 혹은 전문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으로 북경대학이나 복단대학이라고 하는 유수의 대학에서는 잇달아 환경 보호의 과정, 환경 보호 전공이 만들어져 있어 이 곳에서 환경 보호 관계의 기술자를 양성하게 되었다.⁸⁾ 90년대가 되면서 환경교육이 서서히 중등 교육 단계에 이르러 갔다. 그러나 그 교육 내용은 환경 윤리나 환경 의식을 키우는 것보다도 환경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과학적인 요소가 중점이 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환경 의식이 침투할 단계로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는 공해 문제 등으로 인한 풀뿌리의 시민 운동이 중심이 되어 행정을 움직여 최종적으로 나라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게 했다. 시민의 행동이 행정을 움직이게 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에 일관하고 있어 환경 교육의 정비에 있어서도 상급 학교에서 착수하여 점차적으로 하급 학교에 이르는 위에서 밑으로의 움직임이었다.

이 '상급 학교에서 하급 학교로'라는 환경교육의 정비의 순서가, 중국의 초등·중등 교육 단계의 환경교육의 특색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환경교육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환경교육의 진행 방식은 대학의 환경 보호의 과정을 마련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환경 교육이 고등 학교나 중학에 그리고 초등학교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수법이 채용되어 왔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학년용의 환경교육의 교재에서도 「환경보호 활동 연구성 학습」⁹⁾이라고 하는 과목명이 간행되고 있다. 환경교육에 의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기본 경향은

지금도 농후하다.

중국에 있어서 대학으로부터 시작한 환경교육의 충실을 고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넓혀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96년에 나온 「全國環境宣傳教育行動綱要(1996~2010)」¹⁰⁾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 강요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15년간에 환경 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초·중학교의 활동과의 시간을 활용해 환경 보호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녹색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위에서부터의 지시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자세는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확실히 나타나고 이 행동 강요가 나옴으로 인해 예를 들면, '교내를 될 수 있는 한 푸르게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분별을 하자, 또는 「지구의 날」에는 초·중학생이 가두에 나와 어른들에게 환경 보호를 호소하는 활동이 중국의 학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보호 활동이 활발한 학교에 대해서는 「녹색학교」라는 명예 높은 개인의 칭호가 주어진다. 「녹색학교」로서 인정된 학교의 수는 2000년 10월 시점에서 중국 전 국토의 3,200개교였던 것이 2004년 6월 말에는 1만 7,240개교까지 증가하고 있다.¹¹⁾ 학교를 중심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힘을 불어 넣으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데에는 96년의 「全國環境宣傳教育行動綱要(1996~2010)」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2003년의 「中小學生環境教育專題教育大綱」¹²⁾가 발표되어 전국 모든 초·중·고의 환경교육의 시간을 마련해 테마 학습을 하도록하게 되었다. 시간수는 적지만 초·중학교에서는 1년간에 12시간, 고등학교의 경우는 8시간을 확보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한 테마를 설정하여 테마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 학년 단계에서는 자연과 친하게 지내도록

8) 입내안(1998), 환경 교육의 강화와 환경 의식의 고양(참고 문헌 5 수록), p. 15.

9) 중소학종합실천활동지도총서로서 2004년에 중국 환경과학출판사보다 간행

10) <http://theglobe.ep.net.cn/library/huanbao021.htm> 등으로 열람가능(중국어)

11) <http://www.greenschools.com.cn/greenschools/zhglssx/tjb.htm>(중국어)

12) <http://www.fxzx.net.cn/wtz/hbjy/zxhjyydg.htm> 등으로 열람가능(중국어)

하는 활동 사례가 있으며 점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문제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활동 등이 예시되어 있다.

중국은 광대하여 환경교육의 침투라고 하는 점에서도 중앙과 지방, 도시 지역과 농촌에서 큰 교차가 있다. 예를 들면 「中小學生環境教育專題教育大綱」에 근거하는 환경에 관한 테마 학습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진 일부의 학교에서 밖에 그 취지에 따른 수업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중국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의 보급 정도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 수십년간을 살펴보면 환경 보호나 환경 교육에 관한 명확한 지시가 초·중·고에 대해서만도 2회에 걸쳐서 발표되어 왔다. 그것을 각 학교가 성실하게 받아 들여 환경교육을 보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환경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환경교육(2)－그 특징 및 NPO의 동향

필자가 중국의 환경교육이 일본의 환경교육과 다른 것을 인식한 것은 1996년의 일·중 공동 환경교육 심포지엄에서이다. 프로그램의 처음에 북경시 제 13 중학교(초급 중학 3년+고급 중학 3년)의 방문에서 들은 학생들의 연구 발표의 수준의 높이에 깜짝 놀랐다.

한 고등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어느 교차점을 자동차가 어느 정도 통행하여 어느 정도의 배기ガ스가 배출되는지 그리고 정체하고 있는 차가 많을수록 오염의 큰 원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확실한 조사의 경위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양계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열심히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적절한

제언으로 발표 내용으로 매듭지었다. 학생들의 발표 자세는 어느 발표에도 당당하였고 확실히 제시된 내용은 연구 논문에 적합한 것이었다.

이 북경시 제 13 중학교에서 하나 더 놀란 것은 학생에 대한지도 체제였다. 당연히 그 학교의지도 교사는 환경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지도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강력한 협력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이 북경시 제 13 중학교는 북경시의 서성구(西城區)에 있다. 그 서성구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과학기술관에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력이 높은 교사가 있어 그 교사가 같은 区에 있는 중점 학교(특히 우수한 학생이 모여 있는 학교)를 순회하여 각각의 학교 선생님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해 오고 있었다. 그지도는 단지 학생들에게 실험을 시키거나 조사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게 하여 콩쿨에서 발표하게 하고 상을 받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지도였다. 그 날의 두 명의 발표자는 그 전해에 북경에서 금상을 받은 학생이었고, 터키에서 열린 국제적인 환경교육의 콩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으로 훌륭한 영어 실력을 발휘한 발표였다.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정리·분석한 후, 정책 제언을 하는 스타일의 환경 학습의 진행 방식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다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이 초·중학생에게까지 침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환경교육이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에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청소년 과학기술관의 교사가 학교 교육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청소년 과학기술관은 1980년대 초기에 중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등소평(鄧小平)의 지도하에 1978년부터 개혁 개방 노선으로 전환한 중국은 그 후의 발전의 열쇠로서 「공업의 근대화」, 「농업의 근대화」, 「국방의 근대화」, 「과학기술의 근대화」로부터 되는 「네 개의 근대화」를 내걸고 추진하였다. 그 중의 「과학기술의 근대화」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 과학기술관이다.¹³⁾ 그리고

13) 스와 테츠오(2000) p.327.

청소년 과학기술관의 설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과학 기술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간 것은 대부분이 이과 출신으로 뭉쳐진 중국 공산당 상충부의 정책 입안·집행 책임자 집단이었다. 표 2에는 원고 제한상의 관계로 유명한 지도자 5명만의 출신교·출신학부만 기재했지만 현재의 7명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3명의 국무원부총리도 전원이 과학부의 출신자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입안·집행 책임자의 출신 학부를 보면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진행시키고 과학적으로 해결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중국의 환경교육의 특색이 중국의 정책 입안·집행 책임자 그룹의 의향과 무관계하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교육의 또 하나의 특색은 지식을 중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중·일이 함께 배우는 환경」의 편집 과정에서도 중국측은 과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제안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된 지식이 포함된 「자료 카드」의 첨부를 주장했다. 일본측이나 한국측은 지식 편중에 난색을 나타내 서로 양보하는 것에 대한 곤란을 결정했지만 중국어의 교재를 일본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면 약 1.5배의 분량이 되므로 중국어판에서는 상세한 자료 카드를 첨부해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에서는 매우 간단한 자료 카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양한 지식을 갖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사고의 깊이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것으로 지식 편중에 빠지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지만

환경교육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을 중시하는 중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어서 최근 활성화 하고 있는 환경 관련 NPO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필자가 관련되고 있는 한·중·일 환경교육협력회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 각지에서 20회 이상의 환경교육 연수회를 실시해 왔다. 최초에는 북경 중심으로 환경교육 연수회를 개최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武漢, 西安, 重慶 등 북경 이외의 도시에서도 환경교육 NPO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교육 NPO는 각 지역에 「녹색학교」를 늘리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 중에는 일본이나 한국의 감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의 NPO도 존재하고 있다. 한·중·일 환경교육협력회로서 연수회를 실시하여 필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 호북성(湖北省)의 襄樊(시양관)시 환경보호협회, 별칭 「녹색한강」의 경우, 안내되어 처음 간 곳이 시양관시 인민 정부의 문이었다. 부동자세로 차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앞을 지나 정부 관계의 시설의 일각에 사무소가 놓여져 있었다. NPO(비영리 단체)는 이전에는 NGO(비정부 조직)라고 말해져 왔기 때문에 NPO는 정부와 무관계한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양관시 환경보호 협회는 분명하게 시양관시 인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반관반민(半官半民)과 같은 존재이었다. 중국은 환경 보호를 국책의 하나로 내걸고 있으므로 지방 정부가 지지

〈표 2〉 중국의 주요 지도자의 출신 대학 및 출신 학부¹⁴⁾

이름	생년	직책	출신교
江澤民	1926	元黨總書記, 國家主席	上海交通大學 電機學部
李鵬	1928	元國務院總理	모스크바 動力學院
朱鎔基	1928	前國務院總理	清華大學 電機學部
胡錦濤	1942	黨總書記, 國家主席	清華大學 水利工程部
溫家寶	1942	國務院總理	北京地質學院 大學院

14) 중국인 사물전 <http://www.panda.hello-net.info/person/ptop.htm>(일본어)보다 작성.

하고 있는 지방 정부 직속의 환경 관련 NPO가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국책으로서 환경 보호를 내걸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강댐이나 남수북조(南水北調, 남쪽의 장강 유역의 풍부한 물을 물이 부족한 북경의 천진(天津)에 조달한다)라고 하는 환경 파괴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양판시 환경보호협회와 같은 반관반민적인 환경 관련 NPO 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진가가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시양판시 환경보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세 전후라고 생각되는 여성이었다. 또 2001년 8월에 西安에서 열린 환경교육 연수회의 주최자가 陝西媽媽 환경보호 지원자 협회라고 하는 어머니 집단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인 북경의 환경교육 NPO 「녹지행(綠之行)」의 주요 멤버도 대부분이 여성이다. 남성에 비하면 여성 이 끈기가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도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경교육 NPO의 운영을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중국에 있어서도 환경교육의 미래를 밝혀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말해도 한국의 약 97배의 넓은 국토와 한국의 약 30배 가까운 인구를 생각하지만 중국에 있어서의 환경 관련 NPO의 활동은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전에는 환경 문제의 실태가 은닉되기 쉬었으며 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발신하는 NPO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대론도 당당히 인터넷을 통해 흐르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가 환경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밝혀 오고 있어 환경보호를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10년간의 진전된 모습을 되돌아 보면 향후의 중국의 환경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한다는 것이 조금은 쑥쓰러운 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경우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해 두고 싶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밖에 없는 특징으로서는 우선 선택 과목이지만 중학교의 정규의 수업 과목으로서 「환경」과목이 존재하며 거기서 배워야 할 내용 등이 「교육과정」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정규 교과서가 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에 고시된 한국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권의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맡기기로 하여 독자적인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이상으로 연간 34시간(주 1시간)의 「학교 재량 시간」이, 또 중학교에서는 연간 34~68시간의 「선택 교과」가 신설되어 있다. 중학교에 신설된 선택 교과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환경」이라고 하는 정규 수업 과목이 개설되었다.

1997년 12월에 공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학교 재량 시간」은 「재량 활동」이라고 개칭되어 연간 68시간(1학년은 60시간)으로 늘어났다. 중학교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최종 학년에 위치한 고등학교 1학년에도 「재량 활동」이 신설되어 중학교에서는 연간 136시간, 고등학교 1년으로는 204시간이 배당되었다. 그러나 같은 「재량 활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1년의 「재량 활동」은 표 3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교과 재량 활동」은 또 「선택 과목 학습」과 「기본 교과 심화·보충」으로 나누어지고 중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으로서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가 설정되었다.

일본의 「총합 학습 시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서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불과 600자 정도의 간단한 것이다. 그 결과 학급 담임제를 채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 담임제를 취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배당시간에 비해서 당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

〈표 3〉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재량 활동」의 학교급별, 영역별 배당 시간수

영역	하위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재량 활동	기본 교과 심화 보충	-	0~68시간	4~6단위
	선택 과목 학습	-	34~102시간	4~6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68시간	34시간	2단위 (34시간)
계 68시간		136시간	204시간	

(출처: 교육부, 1999)

되지 않고 학력 저하의 원인의 하나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음의 지도 요령의 개정에서는 시간수의 삭감이 필연적인 상황이 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선택 과목」을 마련해 「컴퓨터」,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라고 하는 21 세기를 살아갈 한국의 청년들에게 꼭 배워야 할 과목을 열거함과 동시에 기본 교과 심화·보충이라고 하는 틀을 마련해 학력 저하를 막아 내려는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선택 과목의 「환경」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보면 환경 보전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지식 습득과 함께 주체적 참여 활동이 중점이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 관한 부교재에 비하면 체계성이라는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주체적 참여 활동보다는 환경에 대한 지식 습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학교의 선택 과목 「환경」에 대해서는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서구의 교육 제도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음이 추측된다.

한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결속하여 환생교(「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의 모임」, 2003년까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 모임」)라고 하는 전

국적으로 환경 정의를 강조하는 환경 보호 조직을 갖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 활동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자세는 거의 볼 수 없다.

III. 한·중·일 3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과제

지금까지 논해온 것처럼 한·중·일 3국의 환경교육에서 각각의 다른 특색을 볼 수 있다. 최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해 예를 들면 중국의 「中小學生環境教育專題教育大綱」의 초등학교 저학년에 예시되고 있는 학습 테마의 참가 체험형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진전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한·중·일 각국의 환경교육의 특색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환경교육의 보급·침투를 방해하고 있는 각국 각각 고유의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환경교육의 과제로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제일 먼저 일본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환경 학습이 「모든 교과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내용을 적극 체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주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활동으로서 환경에 이로운 자신의 행동을 10개의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게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대학생은 제일 중요하다는 항목에 「식용 폐유를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것이 많았다. 한편, 같은 항목을 중국에서 실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돗물 절약(절수)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일본의 대학생 대부분이 「육식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최하위에 두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주변의 오염이나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이 대량 생산·대량 소비에 의해 삼림 파괴나 사막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대학생이 매우 많다. 「육식과 환경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태연하게 질문하는 대학생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중학교 「환경」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육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한 판단을 불러일으키고 사고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환경에 관한 테마 학습을 의무화하거나 한국이 중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환경」을 개설해 환경교육을 충실히 시키려고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비하여 일본에서는 「총합 학습 시간」의 삭감으로 인해 환경교육이 후퇴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4반세기 동안 일본의 초·중등 교육에서는 일관되게 「여유있는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70

년대까지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학교의 수업 시간을 줄이고 아동·학생의 학교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해왔다. 그러나 학습 내용의 삭감에 의해 이해도가 향상되기보다는 가정에서의 학습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학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4년 말에 잇달아 발표된 OECD의 「국제 학력 도달도조사(PISA)」 및 「국제수학·이과교육동향 조사(TIMSS2003)」에서 국제적인 순위가 하위에 머물렀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여유있는 교육」을 진행시켜온 문부과학성 자신이 기초 학력의 저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간신히 정착하기 시작한 「총합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1월 나카야마 문부과학대신은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삭감 등에 의해 주요 교과의 수업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했다.¹⁵⁾ 시간 범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신히 진전의 징조를 보여왔던 일본의 환경교육이 다시 후퇴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과제를 두 가지 지적해 본다. 제일 먼저 학교에 의한 격차 지역에 의한 격차가 여전히 큰 문제점이다. 앞에서 이미 말해 온 것처럼 중국에서는 1996년에 「全國環境宣傳教育行動綱要(1996~2010)」가 나온 이후, 환경교육이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녹색 학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6월말에는 1만 7000교를 넘어 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 국토의 초·중학교의 수가 약 60만개교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한 일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금까지 방문한 학교는, 북경의 「綠之行」의 멤버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지방 도시에서도 각지의 환경교육 NPO가 관련되고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일반 학교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다르게 환경교육에 힘을 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확실하게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 또 대

15) 아사히 신문 2005년 1월 19일.

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환경교육을 해 오지 못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2003년에 나온 「中小學生環境教育專題教育大綱」에 의해 모든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테마 학습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테마 학습을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의한 격차, 지역에 의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연수 등 지도자 양성 제도의 확충이 급선무이다. 중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생애 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환경교육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정비가 시작되어 1996년 이후가 되어 초중학교에서의 대처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벌써 사회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염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교육과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이 환경 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개선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환경 의식 계발을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 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 체제가 확립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 지도자 양성 제도의 확충은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과제를 지적해 보자.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에서 필자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교육 행정 사이드와 교육 현장의 불협화음이다. 교육 행정 사이드와 교육 현장의 대립은 어떤 나라더라도 많은 적든 간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최근의 교원의 정년 단축 단행에 이르기까지 강권을 계속 발동하는 교육 행정 사이드와 그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교육 현장의 대립이 격렬했던 것 만큼 양자의 도량이 매우 깊은 것 같다.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지구 환경 문제를 시야에 넣은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교육 행정 사이드의 움직임과 구체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아이들을 함께 참가시키면서 자연 보호나 자연

체험의 중요성을 체득하려고 하는 환생교의 움직임은 한국의 환경교육을 특징짓는 두 개의 근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면서 독자적으로 걸어가려는 인상이 강하다. 양자가 조금만 더 협조하면 환경교육의 보급·정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또 하나의 과제는 중학교의 선택 과목으로서 「환경」을 채택하면서 「컴퓨터」, 「한문」에 압도되어 중학교에서의 「환경」의 채택율이 10% 정도에 그쳐 환경교육의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나 실질적인 한자 학습의 의미를 가지는 「한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의 채택율의 낮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환경」을 공부해 봐야 대학 수험 문제나 취직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근시안적인 판단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환생교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가 경우에 따라서는 급진화 하여 사회 운동화 하는 것에 의해 「환경」의 채택율의 낮음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비율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의 중학교의 「총합학습시간」에 환경을 테마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의 「환경」 과목의 채택율의 침체에 관해 그 이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에서 말한 한국의 두 가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이다. 첫 번째의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나 교육자 그리고 NPO 관계자 중에는 의식적으로 교육 행정 사이드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맞추어 가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노무현 정권 탄생 후 교육 행정의 중추에 환경 운동 경험자를 등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며 교육 행정 사이드와 교육 현장의 통통이 급속히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선택 과목인 「환경」의 낮은 채택율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컴퓨터 학습의 정착과 컴퓨터 조작의 향상에 의해 중학교에서 구태여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환경」의 채택율이 향

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V. 한·중·일의 환경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면 고유의 특징과 고유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중·일의 환경교육을 비약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각국의 자조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총합학습시간」의 삭감으로 환경 학습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만, 이 기회를 포착해 일본의 환경교육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중학 1학년이 주 1시간 이수하는 「환경」이라는 과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에 있어 생애 교육으로서 환경교육의 충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인정되는 21 세기의 사회인에게는 컴퓨터 소양과 함께 생태 소양이 불가결!」이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각국의 독자적인 대처와 함께 한·중·일 3국의 공동의 대처가 각국의 환경교육에 다양한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중·일의 대학생 환경 토론 대회를 개최해 보면 일본의 교육 관계자에게는 일본의 대학생들의 환경에 관한 기초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한국 환경부의 지원 하에 한·중·일의 교사 및 연구자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만화책에 의한 한·중·일 청소년 환경 개선 사례 소개」가 만약 중국어판으로 만들어져 중국 전 국토의 학교에 배포된다면 만화책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특성에 의해 환경교육의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환경 의식 계발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한·중·일 공동의 활동에 관해서 필자가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원고를 끝내겠다. 동아시아에서 질 높은 환경

교육을 비약적으로 보급·정착시키는데 있어서 불가결하며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넓은 시야와 다양한 환경교육의 수법을 몸에 익힌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각국의 학교에 환경교육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사가 지금에 비해 수배 더 있었더라면 일본에서는 「총합학습시간」을 활용한 충실한 환경 학습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도 환경 테마 학습의 학교간 격차, 지역간 격차는 좀 더 축소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중학교의 선택과목인 「환경」과목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교육자들의 사이에서부터 일어나 「환경」의 채택율은 더욱 높아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면하는 환경교육의 지도자 양성이나 현역 교원의 환경교육의 지도 능력을 갖추는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 고유의 특색을 갖고 있는 한·중·일 3국의 환경교육 관계자가 총력을 다해서 「한·중·일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핸드북」의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중·일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핸드북」을 활용해 3국 협작의 「한·중·일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캐러밴(caravan=보급·선전대)」를 조직하고 동아시아 각지에서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회를 개최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공동 사업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이하와 같은 것이다.

- 1) 3국의 환경교육의 우수한 부분을 결집시켜 양질의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핸드북」을 작성할 수 있다.

-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캐러밴」에 복수의 국가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환경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수강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

- 3) 캐러밴 참가자 자신이 이웃 나라의 환경과 환경 문제, 환경 교육의 실태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 4) 서로가 이웃 나라에 많은 친구를 가질 수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면 물론 상당한 자

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급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코스트·퍼포먼스(비용/효과)라고 하는 점에서도 고액의 환경 분석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유익·유효한 사업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실현을 향해 한·중·일의 환경교육 관계자는 일치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V) -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교육부.
- 문부성(1991). 환경 교육 지도 자료 - 중학교·고등학교 편, 대장성 인쇄국, (일본어).
- 문부성(1992). 환경 교육 지도 자료 - 초등학교 편, 대장성 인쇄국, (일본어).
- 문부성(1999).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해설)이

10년 12월) 해설 - 총칙편 -, 토쿄서적, (일본어).

스와 테츠오(2000). “북경시의 청소년 과학기술관과 환경 교육”, 동양 문화 연구, 제2호, 가쿠슈인대학 동양 문화 연구소, (일본어).

스와 테츠오(2002). “한국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과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가쿠슈인대학 문학부 연구 연보, 49, 가쿠슈인대학, (일본어).

이경환, 박제윤, 권영민(2002). 한국 교육 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일중공동 환경교육 심포지엄 일본측 조직위원회 편(1998) “중국의 환경 교육과 일중 교류”, 일중 공동 환경 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일본어).

중앙교육심의회(1998). ‘유아기부터 마음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답신, 종합교육 기술, 1998년 11월호 중간, 쇼우갓칸 수록, (일본어).

최돈형(2004). “학교환경교육의 태동, 발전, 그리고 미래”, 2004년도 한국환경교육학회 후반기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환경교육학회.